



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. [© 디지털데일리]

[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]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'2024년 과학기술·정보통신의 날 기념식'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.

이날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(4월 21일)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(4월22일)을 맞아 과학기술·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·정보통신인의 자긍심·명예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.

올해 행사는 '글로벌 과학기술 허브·디지털 모범국가 실현'을 주제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.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. 윤 대통령은 이날 "전 세계는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권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

있다"며 "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'퍼스트 무버'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,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, 이태식 과총 회장,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·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.

과학기술·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함해 총 수상자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.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, 포장 10명, 대통령 표창 21명,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.

과학기술 창조장은 38년 동안 한국화학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,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했다.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.

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·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·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&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.

대통령 표창에는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받았다.

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해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,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

26명이 받았다.

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, 포장 5명, 대통령 표창 6명,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.

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-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,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.

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,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 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.

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,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,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받았다.

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,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.

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, 포장 6명, 대통령표창 18명,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(4개 단체 포함)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.

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,

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,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.

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·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.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받았다.

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,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됐다.

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흥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받았다.

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3대 기술인 인공지능(AI), 양자, 첨단바이오 기술의 폭발적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
Copyright © 디지털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채성오 기자 cs86@ddaily.co.kr

[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>](#)

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

[현장] 'AI 반도체'에 꽃힌 정부, 과학기술 R&D 예산 확 늘린다(종합)

개인정보위-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, 불법스팸·개인정보침해 공동 대응

과기정통부·산하기관 해킹 위해 ‘학생 화이트해커’ 모였다

과기정통부, 50억원 규모 의료 AI 데이터 사업 추진



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채널 *Beta*
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볼 수 있어요!

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



플레인비트,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



SK실더스, 중소·중견기업 정보보안 돕는다...여경협과 협



[금융권 망분리 개선] 올 것이 왔다...국내 보안업계 지각변



헥토파이낸셜, 삼성전자와 장애인용 ‘배리어프리’ 키오



iM뱅크,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(FDS) 인력 강화...



NIPA, 건양대 손잡고 공개 SW 전문가 양성한다